

공약 실현 법적근거 마련

도교육청, 농촌유학·초등생 구강건강 진료·저소득층 복지 증진 조례 등 입법예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현재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입법예고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상 조례는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다.

먼저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유학의 대상지역을 전라북도 농산어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조례안 2조4호에 농촌유학이란 전라북도 권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

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합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는 △구강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 △구강건강 관련 실태 조사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 축하 지원금, 설·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관련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교육혁신과,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인성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6일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 역세권 주민들과 상호발전·우호 증진

전주대 산학협력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6일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대 산학협력단 김상진 단장과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 노치화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 △산·학 연계 공동연구 및 발전 △기술지도 등이다.

이에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는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 질 외식 창업 지원 시설인 전주맛집 창업교육관을 관리하고, 주민 자체 조직인 사회적 마을 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과 임종전환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 노치화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계기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기술 지원에 감사하다"며 "도시재생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대학과의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진 단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발전의 도모하고 양 기관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인공지능·전통소리 새로운 융합 모델 제시

전주대 산학협력단, 기계학습데이터 맵핑-Sori N' 개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진)은 지난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광장 앞 소리정원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와의 공동 기획으로 국악 AI 학습데이터 활용 예술-기술 융합 해커톤 '기계학습데이터 맵핑-Sori N'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프로그래머, 예술가, 큐레이터 등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참가자가 국악 AI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지원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해커톤 행사는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이 만개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국악으로 표상되는 한국 전통 소리자원이 인공지능과 결합해 사회적 효용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데이터)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악 분야의 데이터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해당 성과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광장 앞 소리정원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와의 공동 기획으로 국악 AI 학습데이터 활용 예술-기술 융합 해커톤 '기계학습데이터 맵핑-Sori N'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뉴미디어 아티스트 정문성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악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도전이 펼쳐졌다"면서 "초기 단계여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도 있지만, 해커톤의 시간이 무의미할수록 국악 AI 데이터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확연히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악 AI 학습데이터 개발사업단의 책임을 맡아 진행해 온 김병오 교수(문화콘텐츠학과)는 "우리가 만든 국악 데이터가 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성 높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비롯한 지역사회 국악 분야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의 질적 도약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교 51주년'... 학생·교수·동문 한마음

전북대 의과대학 화합의장 열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은 개교 51주년을 기념해 지난 22~23일 이틀 간 대학 구성원과 동문이 하나 되는 화합의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임석태)은 개교 51주년을 기념해 지난 22~23일 이틀 간 대학 구성원과 동문이 하나 되는 화합의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부터 의대 합동강당에서 열린 개교5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의학교육평가기준 등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보고와 우수 연구학생 시상 등이 열렸다. 우수 연구학생으로는 의예과 2학년 의학동계 3개 팀과 의학과 1학년 의학연구 8개팀, 의학과 우수논문 7개 팀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영선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일상속 인권-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의료인들이 갖추어야 할 인권의 중요성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전했다.

또한 2부에서는 전북의대 동창회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의대 동창회에 대한 소개와 장학금 전달 그리고 졸업 20주년을 맞은 의대 동문

들의 발전기금 전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의대 동창회는 학생들에게 3,6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졸업 20주년을 맞은 제26회 졸업 동기모임에서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임석태 학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선 22일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축제 한마당인 '명의제'가 열려 개교 51주년의 의미를 모든

구성원이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석태 학장은 "개교 51주년을 기념해 교수와 학생 동문이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을 이틀간 열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북대 의대 구성원과 동문들이 하나 되어 세계에 우뚝 설 새로운 100년을 지향하는 전북대 의과대학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영농학생축제로 꿈을 펼쳐라

도내 농업계고 학생 96명이 참가... 27~29일 김해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29일 경남 김해서에서 펼쳐지는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2 FTK경남대회)'에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농생명산업계열 고등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업교육에 대한 진로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국의 영농학생회(Future Farmers of KOREA)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이다.

전북 대표로 전주생명과학교, 김제농생명미이스터고, 남원용성고, 한국경마축신고, 영선고, 부안제일고, 한국치즈과학교, 정음제일고, 한국한방고 등 9개 학교 96명의 학생들이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정·

산림자원, 화훼장식, 제과·제빵, 조정설계, 농기계정비, 애견 미용, 농식품조리, 경영과제, 연구과제 등 20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영농학생축제는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순환 개최하며, 올해는 김해생명과학교에서 주관한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개최한 바 있다.

개회식은 27일 김해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도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미래 농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선진 농업 교육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박물관, 28일 이충렬 감독과 '시네마 토크'



전북대학교박물관(김은희 관장)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감독초청 시네마 토크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워낭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충렬 감독(사진)이 진도의 다시래기를 소재로 만든 극영화 '메이소'를 지역민들에게 소개한다.

다시래기란 초상장에서 사망자의 극락왕생을 빌어주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상여꾼과 관태가 벌이는 일종의 가무연희다. 진도에 실제로 있는 무형문화재로 국가무형문화재 81호로 지정돼 있다.

한편 이충렬 감독의 초청 시네마 토크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장은성 기자

이색 한옥작품 전시회 '이목 집중'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선운사 대웅전 기둥 실제크기 제작

전북대학교 교정캠퍼스에 있는 한옥건축학과가 선운사 대웅전 기둥 하나를 실측해 실제 크기 만들어 경내 대웅보전 앞에 전시하고 있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곳에서 조기환 부총장과 심덕섭 교장, 군수 임정호 교장협의회장 김만기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개막식을 열었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이어진다.

이 전시물은 폭이 45mX45m에 이르고 높이가 무려 9m에 이르는 대형 구조물이다. 작품은 배흘림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공포를 얹었으며, 지붕구조를 연목으로 마감했다.



선운사 대웅전의 기둥이 자연스런 목재를 활용해 지은 건축물인데 반해, 이 작품은 일반인들의 관람 효과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일부러 배흘림을 뒤 그 이름대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선운사 대웅보전이 보수중이라 일반인들이 관람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전시회를 열어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더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이들은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학생들이다. 교정캠퍼스에 있는 전북대 한옥건축학과는 계약학과로 학생들의 연령대가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다양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여름방학을 활용해 고

/장은성기자·교장=김영식기자

도교육청, 30일까지 '슬기로운 가족과학캠프' 참가자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월 15~16일 1박2일 동안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2022년 슬기로운 가족과학캠프? 사드라 사드라 전주한옥마을에서 즐기는 과학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도내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15가족 내외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숙박을 포함한 1박 2일 동안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과학을 탐구하고, 생활 속 과학을 통해 인간과 자연,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30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설문(<http://naver.me/TKXhkrD>)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사회계층간 과학교육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